

##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음악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음악 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23년 12월 4일(월) 13:00~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인터뷰심의) 2023년 12월 11일(월) 09:00~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소현, 노선미, 박준영, 임수연, 장은호

한 나라의 문화예술은 그 나라의 수준과 품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예술의 수준과 품격을 요구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룬 K-POP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비상업적인 예술가와 단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예술과 정신문화를 보호하고 육성·장려하여,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체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공연예술창작주체 음악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다.

공연예술창작주체 음악 분야는 지원서류 미제출과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2건의 결격을 제외한 총 72건의 신청 서류를 전수 검토하여 1차 서류심의 후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2차 인터뷰 심의는 총 24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자의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3개년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의는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50%), 향후 3년간 활동 목표(30%),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20%)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의하였으며 5인의 심의위원들이 각각의 판단으로 부여된 점수의 합산으로 심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편중된 수도권 중심 예술공연의 문제점을 심의위원회에서 인식하여 지역의 예술공연 지원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의 관계자 또는 특정 개인이 단체를 이용하여 공공성을 해치는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제공하기 위한 탄탄한 연주력을 가진 단체들과 축제의 기획력 및 많은 청중이 관심을 가지는 공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예술을 꾸준히 창작하여 음으로 양으로 예술계에 기여해 온 단체들과 양질의 비평지를 발간해온 단체들을 고루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작공간과 공연비평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예술환경에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지원과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지원한 단체가 적어서 아쉬웠다. 공연제작과 축제 운영은 단체의 역사와 예술계의 기여도 그리고 새로운 사회환경과 문화예술에 대한 단체의 혁신과 변화 등이 반영되었는지 중요한 선정 요인이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예산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도 예술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음악 분야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단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고심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원된 단체들은 단 1원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게 잘 운영하길 바라며 지원되지 못한 단체에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음악 분야 심의위원 일동